

지방자치·종합

文 “정년 60세로 연장” 安 “연령 취업제한 폐지”

文-安 공약 발표…총론 유사 각론 이견

朴 “18조 행복기금 조성 가계부채 해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부문별 종합정책과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계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가세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총론 유사, 각론 이견’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두 후보 모두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

지, 한반도 평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 정체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도 이날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정책집은 25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 등이 포함됐다.

세 후보는 교육공약의 핵심으로 모두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다. 박 후보 측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선별하도록 입시제도를 고쳐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고, 문·안 후보는 모두 ‘현재 평균 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임기 중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하고 장

기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60세로 의무화하고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을 점차 폐지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하고 장기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60세로 의무화하고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을 점차 폐지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세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복지 재원의 60%를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40%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캠프에서 민생경제 대응단장을 맡은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가 ▲기업총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주주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박혜자, 교육관련 현안 토론회



파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적 수준 향상 및 향후 개편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에

서는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에

노희용,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 장애인차별 철폐 연대 상임대표 김용복 목사,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임주섭 5·18 상임행사위원회

노 후보의 필승을 기원했다.

조용진 “교부금 늘려 동구 재정 확충”



자체 수입이 719억 원에 불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면서 “단기간에 세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교부금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동구의 연간

박문서 “생태문화 올레길 조성할 것”



문화 올레길은 상시 공연과 전시 등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골목 상권도 회복하고, 새로운 도시생태개발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선관위, 투표참여 홍보단 발대식

전남도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일 ‘우체국 집배원과 함께하는 투표 참여 이동홍보단 발대식’을 전남 21개 시·군 우체국 주차장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남지방우

청정 소속 집배원 및 택배차량 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7년 知己 박준영 전남지사가 본 시진핑

“한국 역사·경제 해박…화합 리더십 기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최고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시진핑과 7년 지기(知己) 박준영 전남지사의 각별한 우정이 새롭게 화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차세대지도자로 등극하는 시 부주석에 대해 ‘진지하고 겸손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통큰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4차례 만나 우정을 나눈 시 부주석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다”며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경제 등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남달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수까지 정확히 말하고 무역 규모도 궤뚫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시 부주석과의 인연으로 전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 이어 2007년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 시 부주석을 만날 때를 소개해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4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부주석과 환담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면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주변 재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관계관을 불러 검토한 뒤 ‘존속’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보고 관단력과 리더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최고 실력자가 외국의 지방단체장과 독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반응을 보였다.

박 지사는 “앞으로 중국이 빈부격차나 소수민족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시 부주석이 이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감과 신뢰가 쌓였다고 한다. 올해 4월 베이징에서 가진 네번째 만남에서는 시 부주석이 ‘라오평여우’(老朋友·오랜 친구)로 박지사를 소개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두배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진지한 환담을 가졌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최고 실력자가 외국의 지방단체장과 독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반응을 보였다.

박 지사는 “당시 저장성 서기였던 시진핑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남도를 방문했고 4개월뒤에는 박 지사가 당방하면서 우정이 시작됐다. 2007년 7월에는 상하이 당서기로 옮긴 시진핑을 만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남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여러 차례의 교류를 통해 서로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野 후보단일화 촉구 광주 2013인 한자리에

정권교체 시민행동 출범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시민

민 2013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희망 2013’, 정치혁신 정권교체 광주 시민행동은 지난 9일 광주 YMCA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YMCA, YW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타운미팅을 갖고 정치혁신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한시적 범시민연대 기구 발족을 주진해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광주 시민행동 찰설플에 합의했다.

광주 시민행동에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 5·18 단체 등 18대 대선 이후 2013년부터 정치혁신을 희망하는

2013명의 지역 인사가 참여했다.

광주 시민행동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양 후보 측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감동을 주는 정치쇄신 안에 합의할 것과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민주개혁세력과의 대통합 등을 주문했다.

광주 시민행동은 이날 저녁 5·18

기념문화관에서 ‘희망 2013! 광주 시민총회’를 열고 정권교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 치러진 이날 총회에서 광주 시민행동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이를

다룬 단일화, 유권자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SNS 온라인 활동, 지역별 모임 조직화,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별도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북미 무역사절단 955만달러 MOU

광주시는 “최근 북미지역에 무역사절단을 보내 3건 95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역사절단은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과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광주 중소기업 9개사와 함께 주력상품인 기계·금형, 광·발광다이오드(LED), 전자, 소비재 등 우수 제품에 대한 수출 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다.

그동안 중국과 타이완 등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등을 수입해 왔던 현지 기업

인들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수출 계약으로도 이어졌다. 플라스틱 사출금형 업체인 지엔에스티씨(800만 달러,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오양물산(155만 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현지 업체와 체결했다.

/백진우기자 lucky@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특별할인)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한은행 1층~7층 까지

분양 임대 중(9월 30일 까지 20% 특별할인)

병원·한의원·학원·독서실·헬스·모든 업종 가능

상촌동 역세권 개발·운천역 1분 코너

1층~6층 상가분양 임대 > 편의점·국민·커피·생수시설

7층~15층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임대

신축 원룸매매(5억~20억까지)

조대·전대·상촌동·수완지구

수원수지구 블록 23개 월수익 900~1,000만 원

상촌동 운천역 3분 블록 17개 월수익 750~800만 원

매기 8억(보5천, 용3억)

조대후문 1분 블록 16개 월수익 650~700만 원

(보5천, 용2억5)

전대후문 1분 블록 14개 월수익 500~600만 원(보5천, 용1억5)

교현전문, 수익성 상가

3억~100억까지 다양물건 확보

상가 1층 4칸 6억(보5천, 월 380)

상가 1층 6층 45억

상가 2층 18억(식당 건물)

주체빌딩 길동 1층 11억(보5억, 월600, 용6억 대형식당 가능)

오피스텔 등 적합 투자 가치 좋은 10억5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949.co.kr

010-6670-9800 / 062-952-5524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매매)

1.서구 수원지구 매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대지 1,050평, 건물 2,190평

2.서구 수원지구 매인상권 상가빌딩 대지3,030평, 건물 4,130평

3.서구 수원지구 내수로 12번길 524평

4.서구 수원지구 중앙상업지구 대지 1,190평, 건물 1,939평

5.